

김상현 100호 홈런 썼다

KIA, LG에 6-2 승 ... 삼성에 승률 뒤져 2위
 로페즈 8이닝 2실점 ... 10승 다승 공동선두

'1일천하' KIA의 정상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LG와의 경기를 위해 주말 잠실 원정길에 나선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처음으로 1위 고지를 밟았다. 10일 6-2로 승리를 거두고도 승률에서 밀리며 삼성에 이어 2위로 한 주 일정을 마감했지만 정상 탈환 전망은 밝다. 조범현 감독의 500승이 달성된 8일 KIA는 651일 만에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8일 에이스 윤석민을 선발로 내세운 KIA는 1-0으로 7회 강우 콜드게임승을 거두며 삼성을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랐다. 2009년 9월25일 정규리그를 1위로 마감한 이후 첫 1위였다. 운이 따른 하루였다. KIA 마운드를 책임진 윤석민이 6회까지 LG를 2피안타 3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냈지만 LG 선발 심수창도 6과3분의 이닝을 5피안타 2사사구 5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맞섰다. KIA 윤석민과 LG 심수창의 투수전이 전개되면서 이날 경기는 마지막까지 승리팀을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다. 그러나 6회 1사 1·2루에서 나온 KIA의 대

타 작전이 행운의 승리를 불렀다. 나지완의 대타로 나온 이종범은 유격수 옆을 꿰뚫는 적시타로 2루주자 안치홍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KIA의 공격이 진행되던 7회초 2사에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경기 중단이 됐고, 계속된 비에 콜드게임이 선언되면서 KIA의 승리가 확정됐다. 조범현 감독의 통산 500승 그리고 팀의 1위를 알리는 값진 승리였다.

9일 KIA가 선발 양현종의 난조로 LG에 3-4로 아쉬운 패를 당하면서 2위로 추락, '1일 천하'가 되고 말았지만 V10을 달성했던 2009년 보다 나은 빠른 움직임이다. 2009년 8월 2일 KIA는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4-3 승리를 거두며 2516일만에 1위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뜨거운 8월을 예고한 KIA는 이후 월간 최다승(20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1위를 지켰다. 영광의 2009년보다 일찌감치 1위 맛본 KIA는 백전노장 이종범과 해결사 김상현의 부활로 다시 한번 정상 정복을 예고하고 있다. 8일 천금같은 결승타로 조범현 감독에게



김상현 "100개 짜야"

KIA 김상현이 1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1 프로야구 LG와의 경기에서 8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솔로홈런을 때린 뒤 백인호 코치의 축하를 받으며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상현의 통산 100호 홈런. /연합뉴스

500승을 안겨준 이종범은 10일에는 발목 통증을 호소한 이용규를 대신해 플타자로 나서 7회 1-0의 승부를 기울게 하는 천금같은 적시타를 날렸다. 2009년 MVP 김상현도 10일 8회 첫타자로 나와 이동현을 상대로 좌측담장 넘어가는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팀 승리를 자축했다. KIA의 정상 탈환을 예고하는 홈런이자 통산 100번째의 통쾌한 홈런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학선 1080도 회전 신기술로 '金'

코리아컵 국제체조 도마 ... 여자부 조현주도 금

양학선(19·한체대)과 조현주(19·경북도청)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체조대회에서 남자과 여자 도마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양학선(19·한체대)과 조현주(19·경북도청)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체조대회에서 남자과 여자 도마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양학선은 9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포스코건설 2011 코리아컵 고양 국제체조대회' 남자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6.650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얻어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토마 부엘(프랑스·15.987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의 한을 풀어줄 기대주로 꼽히는 양학선은 안방의 이점을 심분 활용, 이 종목 최강자 부엘을 물리치면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 지난해 광주우 아시

안개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올해 세계 대회와 런던올림픽을 겨냥해 신기술을 연마했고 '비장의 무기'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양학선은 1차 시기에서 기존의 '여 2'(난도 7.0점)에서 한 단계 발전해 도마를 짚은 뒤 공중에서 세 바퀴(1080도)를 돌아 착지하는 신기술을 펼쳤다. 공중에 높이 솟구쳐 체공력을 이용해 화려한 공중회전 동작을 펼친 양학선은 최대 관건이던 착지에서 완벽하게 매트에 내려섰다. 국제체조연맹(FIG) 심판진은 16.850점이 라는 이날 최고 점수를 양학선에게 선사했다. 특히 기술 난도에서 종전보다 0.4점이나



오른 7.4점을 책정해 예상했던 7.2점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 양학선은 2차 시기에서 공중에서 세 바퀴를 비틀어 도는 '스카라 트리플'(난도 7.0점) 연기도 깔끔하게 펼

치고 16.450점을 획득했다. 1, 2차 시기에서 모두 16점을 넘는 선수는 참가 선수 5명 중 양학선이 유일했다. 조현주도 10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도마 경기에서 1,2차 시기 평균 14.100점을 획득, 일본의 이즈카 유미(13.862점)와 독일의 욱산나 추소비티나(36·13.737점)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한기주가 돌아온다

18개월만에 1군 복귀 ... 이번 주 선발 출전

한기주가 돌아온다. KIA 타이거즈의 한기주가 8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에서 선발로 등판해 1군 복귀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5회까지 68개의 공을 던진 한기주는 4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 슬라이더는 140km를 찍었다. 퓨처스리그에서 5차례 등판을 소화한

한기주는 조범현 감독이 공인한대로 이번 주 선발자리에서 복귀전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한기주는 "비 때문에 하루 등판이 연기되면서 예정보다 공을 많이 던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픈 곳도 없고 만족스럽게 경기를 마쳤다"며 "18개월 만의 복귀라 기대도 되고 욕심도 난다.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팀 우승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대 0' 야구 맞아?

화순고, 충주성심 학교고 교야구 주말리그 4연승

화순고가 충주성심학교를 28-0으로 제압하고 교야구 주말리그 4연승을 달성했다. 화순고는 10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주말리그 후반기 광역리그 충주성심과의 경기에

서 4회에만 10점을 뽑아내면서 28-0, 5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막강 북일고를 7-5로 꺾었던 화순고는 최약체 충주성심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4연

승을 찍었다. 한편 광주일고-세광고, 효천고-북일고의 대결은 우천 순연됐다. 진흥고-청주고, 군산상고-대전고의 경기는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9일 진흥고-청주고의 경기는 청주고가 1-0으로 앞선 5회초 무사 2루에서 우천으로 중단됐고, 10일 군산상고-대전고의 경기는 4회초 대전고가 7-0으로 앞선 1사 2루 상황에서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중 단체전 우승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 대회



광주중이 제8회 학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중(교장 서백은)은 10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끝난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중학부 단체전에서 용인 백암중을 4-2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1992년 전국시도대학 장사씨름대회 이후 19년만의 단체전 우승이다. 광주중은 지난 6월 태안에서 열린 제 65회 전국선수권 장사 씨름대회 준우승에 이어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신흥 강호로 급부상했

다. 한편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경남씨름협회·장원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 등 100여개 팀이 10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